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법인 사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2절)
부활대축일 전례에서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아직 밖이 캄캄한 이른 새벽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어머, 이런 일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어요!



서둘러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는 그들과 함께 무덤으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몇 년 후에 바오로 사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의 법인 사랑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의 마리아 끼아라의 경험담이에요.

마르코가 공원에서 노는 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가 거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마리아 끼아라는 마르코를 포함해 모든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해요.



그러자 가장 친한 친구인 루이자는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마리아 끼아라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마리아 끼아라는 슬펐어요. 마치도 마음 안에 큰 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느껴요.



다음날 루이자는 공원에서 마리아 끼아라를 만났을 때, “네가 옳았어. 다 같이 노는 게 더 좋아”라고 했고, 같이 가서 마르코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공원에 있던 아이들과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